

사 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적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긍정적인 뜻을 내포한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사가 만사라는데 사람 쓰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인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잘못된 인사를 극단적으로 표현해 ‘인사가 망사(亡事)’라는 풍자적인 말도 쓰인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인사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곤 해왔다. 한 때 ‘코드인사’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인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도 집권 초기에 특정 학교와 특정 지역 인맥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병폐가 많은 부문으로 선심성 예산 사용과 함께 측근인사 혹은 줄세우기 인사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다가도 금세 수그러들곤 했다.

5일자로 단행된 고성군의 인사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지난 2월 접경개발

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사에서는 큰 불만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노골적인 불만표출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생활을 20여년 이상 해온 중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너무 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사발령 내용이 알려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간성읍내에서는 일

부 공무원들이 술자리에서 인사에 불만을 토로하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애꿎은 군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하소연까지 했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특정 학교 출신의 승진과 핵심부서 영전이다. 이 특정학교는 다른

아닌 황종국 군수의 출신 학교를 말한다. 이는 고대 출신인 이대통령이 고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중앙 정부의 경우 대부분 정부직이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인재를 새롭게 발탁하는 것이고, 자치단체는 조직 내부에 있는 직업 공무원들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다. 직업 공무원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더우기 정무직이라고 해도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출신을 우대할 경우 불만을 표시하는 국민정서에 비쳐볼 때, 직업 공무원 인사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공무원 조직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생활을 조금만 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평가 크기식 인사를 할 경우, 소외된 공무원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처리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다가도 금세 수그러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가 이처럼 무원칙하게 실시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고성군의 미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우리 영토 수호, 고난수모, 피의 투쟁사를 살펴본다. 독립당의 국력미약과 국론분열에 대해 반성해야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발전과 번영하기 위한 국민적 총의가 집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 사는 우리는 시대적 교훈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것.

이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술수 계략 책동과 침략 야욕을 표면상으로 나타난 권모술수의 화신은 청일전쟁(1894~1895년) 동년 동학당란에 청이 출병함에 따라 일본은 천진조약(1885년)을 핑계로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란 구실로 일본도 출병함으로써 우리나라 안에서 대치상태였다.

1894년 6월 풍도 앞바다 아산에서 충돌 동년 8월 개천 성환 평양 요동 방면에서 일본군 승리로 1895년 4월 하란에서 조약을 맺고, 청은 일에 요동반도 대만 팽호도 할양 고평은 이역양을 지급하였다. 이때의 구한국(조선) 멸망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론 영일동맹, 포오츠머스조약은 1904년 러일전쟁이 일본의 결정적 승리로 인하여 1905년 9월 5일 미국 루즈벨트의 주선으로 미국 포오츠머스에서 체결되었다.

열강의 묵인 하에 좌지우지 조약체결에 대하여 하와이 거류민 윤병구 등 교포들이 탄원했으나 미일은 동년 7월 29일에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은 극동평화의 길’이라는 구실 아래 묵살함으로써 한미수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2)

호조약은 무효화되었다. 국론분열과 국력미약은 침략자의 길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과 대륙세력의 진출하는 요충지로서 열강의 각축장으로 강제유인화에 불가피하게 휘말렸다.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철종 1861년 천주교탄압 취체완화 복음화 융성했으나 대원군이 그해 1월 탄압령을 내려 비극을 빚었으니, 국운에도 보이지 않는 침략야심의 실마리가 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민족적 수모와 비극을 빚어내는 한의 역사 요인이 다.

1884년 갑신정변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이 일으킨 친일정치 단체인 개화당이 시대당인 민씨 일파를 물리치고 혁신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일으킨 정변인데, 거사 이룰 수 청병의 반격으로 실패하였다. 이어 뒤에 썬진조약(천진조약) 맺고 1882년 6월 임오군란과 열키설키는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엔 이때까지 옛날식 정치제도를 서양식으로 기본으로 하여 고친 것, 즉 갑오개혁과 동학당엔 동학, 농민혁명운동의 계기로 침입한 일본은 개화파인 친일파를 중심으로 조의연을 움직여 민씨 일파 사대세력을 물리치고, 대원군을 불러들여 어전회의를 열고 신정유서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홍집을 수반으로 혁신 내각을 조직하였다. 이로써 본건체제가 붕괴되고 현대국가 체제를 모방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약소민족을 수난 약탈 수탈 등 지배하려는 야심의 역사들이다. 한편 독립협회의 조직 목적은 독립정신을 고취한 정치 사회단체이다. 선조들은 독립문을 세우고, 그 옆에 있는 독립관을 회관으로 사용하였다. 그리도 독립신문은 최초 국문판으로 신문으로 창간되었으며, 미국 유학생 서재필 윤치호

등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협회지로서 독립협회와 함께 발족한 기관지로서 선봉적 역할을 하였으나, 만민공동회 개칭 후 이듬해 자연폐간되었다.

위 협회를 황국협회장 이기동 조병식 유기환 수구파(왕정)는 동년 11월에 ‘왕정을 폐지하고 대통령제 공화정치를 꾀하였다’고 모함하여 무고하였다. ‘독립협회 무고사건’이다. 이상재 흥정후 남궁억 이건호 정교 윤하영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체포한 후 독립협회를 비롯하여 각 민간단체를 해체하였고, 피신한 윤치호 최경덕 안영수 등은 피신해 난을 면하였다.

즉시 양홍목 이승만 등 많은 독립회원과 배재학당 학생들은 경무청을 방문해 석방을 요구하였고,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을 일제히 공격하였다. 만민공동회장 유근 윤시병을 대표로 하여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상소하여 15일만에 독립협회는 허락 복귀하였고, 위 조병식 일파의 체포령이 내려지자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앞서 수구파 명령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보부상들과 독립협회와의 충돌하여 정국은 더욱 어지러웠다.

나라는 힘이 없고 게다가 국론분열과 당파싸움 틈새 무고 매수 모함 등 평화를 가장한 수호조약 식민동화의 온갖 술수는 ‘바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것을 재확인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영원히 지구촌엔 경제적 식민화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편집국에서

○...최근 고성지역에서 잇달아 군부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대리 포사격훈련장과 아야진 정보부대 숙영시설 관련 민원이 그것이다. 대대리 포사격장의 경우 10여년 넘은 고질적인 민원이며, 아야진 정보부대의 경우 벌써 30년이나 된 것이다.

주민들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부대의 역할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다행히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성군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